

'생애 첫 차' 가격 경쟁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첫 주자로 '국민경차' 신형 스파크 출시 르노삼성, 글로벌 베스트셀링 해치백 '클리오' 국내 상륙 현대차 엑센트, 1000만원대 가격대로 가성비에서 우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겨냥한 '엔트리카'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엔트리카란 '생애 첫 차'라는 의미로 배기량 1500cc 미만의 차를 의미한다.

크기는 작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승부를 보는 모델들이 줄지어 출시되면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로 침체기였던 국내 소형차 시장이 다시 부흥할지 주목된다.

먼저 한국지엠 체보레는 '국민경차'로 불리는 스파크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스파크'를 내놓았다.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지엠은 신형 스파크를 한국 시장 점유율 회복의 첫 주자로 내세워 판매량 반등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신형 스파크는 이전 모델보다 편의사항과 안전 사양이 재고됐지만 판매 시작가는 20만 원가량 낮아졌다.

한국지엠은 신형 스파크의 판매 전략으로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내세웠다. 신형스파크의 판매 가격은 ▲LS 베이지 979만원 ▲LT 1175만원 ▲프리미어 1290만원 ▲승용밴 베이지 972만원 ▲승용밴 1015만원으로 결정됐다.

데일 샐리번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대부분 트림의 가격이 예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덕분에 신형 스파크의 가치가 더욱 상승했다"며 "체보레는 계속해서 공격적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인상을 최대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신형 해치백 '클리오' 역시 2030 세대의 첫 차를 겨냥한 모델이다. 프랑스의 동일 사양 대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퓨전 카페 어반소스에서 열린 '체보레 더 뉴 스파크 출시 행사'에서 더 뉴 스파크 광고 모델 구혜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비 가격대를 1000만원 이상 낮췄다는 게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유럽시장에서 이미 1400만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검증된 데다 1990만원~232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젊은 세대가 중시하는 T맵, 이지파킹, 스마트폰 플미러링, 후방카메라 등 편의사항도 갖췄다.

시장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지난 15일 판매 개시한 클리오는 사전 계약 시작 열흘 만에 1000대가 예약 판매됐다.

방실 르노삼성 마케팅 담당 이사는 "국내 시장을 두고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선택할 만한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클리

오는 전세계 1400만대 이상 팔리고 프랑스 내 20년간 판매 1위를 차지할 만큼 상품성이 뛰어나다.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넓은 공간활용, 460여 개의 AS네트워크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시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엑센트 역시 1000만원대로 출시돼 '가성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2018 엑센트"의 판매가격은 4도어 모델 ▲1.4 가솔린 1159만원~1751만원 ▲1.6 디젤 1469만원~2079만원, 5도어 모델 ▲1.4 가솔린 1422만원~1766만원 ▲1.6 디젤 1760만원~2094만원이다.

특히 엔트리 트림인 '스타일 트림'은 1159만원대의 가격대로 출시했다.

/뉴시스

우수 농식품 상생기획전 방영

정부인증 14종 공영홈쇼핑서 판매

28일부터 정부가 품질 보증하는 농식품 14종이 TV홈쇼핑에서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11월까지 6개월여 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우수 농식품 상생기획전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제품은 진도감황영농조합법인의 '올금100파립', (주)순수식품의 '도자리배즙·양배추즙', (주)이킵 상승공장의 '다미물 포기김치', (주)디자인 농부의 '통곡물 검은콩 미숫가루 블랙빈', 사나레(주)의 대봉감 절편 등 총 14종이다.

이는 사업에 응모한 66개 농가가 생산한 농식품 가운데 농식품부와 공영홈쇼핑 상품기획자(MD)·품질관리담당자(QA)들의

심사를 거친 제품들이다.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내고 50분 간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제품을 팔게 된다. 원수수료(20%)와 의 차액인 12%는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방영에 앞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의 스마트스튜디오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저비용 동영상 제작도 지원했다.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가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신(新)유통경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농진청, 현장실증·보급사업 동일 지역서 추진

농촌진흥청은 품종의 현장 실증시험과 신기술보급사업을 동일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지역은 전북 고창·김제·군산, 경북 예천, 충북 음성·진천 등 6곳이다.

현장 실증시험은 82ha(헥타르·1ha=1만㎡)에서 진행된다. 유전자물 특산단지 조성, 공 종합기술 현장 적용과 특산단지 조성, 발달용 신품종 확대 보급 등이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총 156ha에서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논콩 재배 품종인 수확 적응을 진행한다.

농진청은 두 과정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연시회·평가회를 실시한다. 작목별 파종, 병해충 방제, 재배 대응, 종자 보급을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도 보인다.

정충섭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새 품종의 실증시험을 통해 생산한 뒤 가까운 시범단지에 바로 보급할 수 있게 돼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농가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경고·자진시정 ↓ 검찰고발·과징금 ↑

공정위, 2017년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 발표 김상조 취임 이후, 민원 급증... 감을 제재는 강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대비 약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원·신고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3만1795건)보다 32%가량 늘어난 4만1804건이 접수됐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 2만4983건이 접수되면서 이전 연도의 신청 건수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다만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자진시정건수는 약 22% 각각 줄었다.

반면, 고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약 14% 각각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1건에서 14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4%, 부과 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웰컴 사건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결과다.

감을 관계 문제가 대부분인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법 등의 경우, 사건 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증가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건수는 45건에서 64건으로,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각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고조치와 자진시정 건수는 463건에서 412건, 477건에서 338건으로 각각 줄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대상 'QR결제' 서비스 시작

수수료 없이 편리한 현금결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

카카오페이는 28일부터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QR결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에게는 '카카오페이 QR결제 키트(KIT)'를 무료로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QR결제'는 카카오페이가 작년 9월 출시한 'QR 송금'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수수료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결제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사업자의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들의 QR결제 이용을 돕기 위해 안내 스티커, 브로셔 등이 포함된 '카카오페이 QR결제 키트'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카카오페이 QR결제' 활용 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모든 송금 기록은 카

카오톡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내역 관리도 수월하다.

'카카오페이 QR결제'의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카카오톡 내 '더보기' > '카카오페이'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 이용 고객일 경우 사업자명, 배송지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키트 제작 및 배송 비용은 카카오페이가 전액 부담한다. 키트는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6월중 배송될 예정이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